

사이드를 아십니까?

Do you know Side?

글. 조정만 Cho, Jeongman · (주)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

해군 근무 시절 이상한 용어를 접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휴식 시간에 고참이 “사이드 타고 올게”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 듣는 말이라 속으로 의아해 했다. 사이드 오토바이를 타고 오겠다는 뜻인가 생각했고 고속 전투정 정박한 섬이 서해 격오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시 독일군 두 명이 나란히 탔던 그런 오토바이가 아직도 있나 보더라고 생각했다. 고참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겨서 공동 침실에서 나왔다. 그 화장지로 오토바이 안장을 닦으려나 라고 더 생각했다. 잠시 후 나는 바람을 쐬고자 갑판 위를 서성이다가 이윽고 배 후미 쪽으로 무심코 다가 갔는데, 배 후미 어두컴컴한 곳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났다. 무슨 일인가 다가가 보니 고참이 후미 충돌방지판 위에서 큰일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배 갑판 위에서 보면 1미터 하단 위치에 마치 선반처럼 배 후미를 다른 배가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충돌 방지판이 있었는데 고참은 거기서 앉아서 큰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이 배 안에 있기는 하지만 좁고 냄새가 났고 군대 특성상 계급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므로, 배 대원들은 어두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 다른 곳 보다도 이곳에서 자주 큰일을 보았던 것이다. 선반 형태의 바닥판은 바다 수면과는 2미터 정도 높이 차이가 있어서 엉덩이를 바다 쪽으로 내밀고 일을 보아도 덩어리 낙하로 인해 바닷물이 튀길 염려도 없고, 무엇보다도 시원한 바람이 엉덩이를 간지럽히며 보는 큰일은 천연덕스럽게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쾌함의 극치였다. 그 후로 나도 사이드를 자주 탔는데 어떤 날은 두 명 이상이 후미 그곳에서 큰일을 본 적도 있었다.

건축설계 일을 하면서 늘 화장실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시절이 떠올라 배시시 웃곤 한다. 사이드를 탄다는 뜻은 충돌 방지판 위를 탄다는 뜻이고 큰일을 그 곳에서 볼 때 사용하는 해군 고속 전투정 대원들만의 은어였던 것이다.

에이, 더럽고 냄새나는 글을 쓰냐고 혹자는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 아니 모든 생물의 일상에서 배설이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 먹고 일 잘하고 잘 놀고 잠 잘 자고 잘 싸야 하지 않는가. 어느 한 곳이 막힌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어줘야 큰일도 잘 보는 것이다. 일화가 있다. 시집을 간 어느 집 딸이 친정에 들어서 시집이 너무 못살아서 먹는 것이 시원찮아 배고파 죽겠다고 부모님께 푸념하자 친정아버지가 물었다. 하루에 큰일은 몇 번 보니? 라고 말하자 딸은 볼멘 소리로 아 그야 한 번은 보죠! 라고 답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우리 딸내미가 먹기는 제대로 먹고 있구만, 잘 먹으니까 하루에 한 번 큰일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적게 먹는 것이 몸에 오히려 이로우니 불만 말고 시집 식구들과 잘 살거라 하며 시집으로 등 떠밀어 보냈다고 한다. 이 짧은 구절 일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몸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순환체계를 잘 점검해서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다. 그곳은 바로 화장실에서다. 소변 색깔과 상태, 냄새 그리고 양, 큰일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다. 역겨운가. 옛날 어의는 임금의 큰 것 맛도 보았다고 기록은 말하고 있다.

호텔 화장실은 신체 비례에 비해 여유롭게 적당히 크고 시원스럽게 천장이 높다. 그리고 공기조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물도 풍부하게 잘 나와서 냄새도 거의 없다. 그래서 모든 화장실은 고급 호텔 화장실처럼 공간을 꾸려야만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설계하고 짓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을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막 다루면 화가 미치리니. 우리는 화장실을 훌륭하게 꾸미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여야만 건강의 선순환 체계를 맞이할 수 있기에 화장실은 정말 잘 만들고 잘 관리하여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화장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나는 제안하고 싶다. 단장을 하는 의미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녀오면 늘 상쾌하므로 그 이름을 ‘상쾌실’로 짓고 싶은 것이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기지개 켜고 일어나 신문을 들고 그곳에 가서 기사를 정독하며 배설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비록 해군에서 느꼈던 ‘사이드 타는 쾌감’을 이제는 맛 볼 수는 없어도, 집 안 안락한 곳에서 하루 동안 먹었던 식사의 찌꺼기를 깨끗이 비우고 씻고 나서면 건강한 하루가 상쾌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니.....